

이것은 서재필이가 미국서 말하는 것이요. 우리가 3월 초하루 날 기념회를 하는데, 이 날은 조선 **사회의 그 중 내일이라도(00:16-00:19)** 말해야 하겠소. 왜 그런고 하니 조선 **사회의(00:23)** 첫 번으로 조선 사람들이 남녘노소, 남방민이 모두 모여서 한 목적으로 동심협력 조선을 독립국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겠소. 그 전국 인민이 합심하고 협력해서 일하면 그 힘이 대단히 커져서 그 큰일한 까닭에 첫 번으로 세계 사람들이 조선 민족이 어떤 민족인줄 알고 비로소 조선 사람을 대접할 생각 갖고 사랑할 생각이 났습니다. 그 3·1운동이 제일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중 놀란 사람, 제일 놀란 사람은 일본 사람인 듯 하오이다. 오늘날 조선 사회가 30년전보다 얼마큼 낮게 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 지금은 자주 독립하는 정부가 생겼고, 그 정부를 세계 각국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. 이 정부는 외국사람들 힘으로 만들었지만, 그 지탱해서 가는 것은 조선 사람들한테 달린 것이요. 만일 외국 돕는 것을 얻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 나라를 정말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고 경제가 흥성하고 민주 권리가 통활하게 할 것 같으면 외국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다행하고 웬만큼 **편편하겠지만(02:26)** 외국 사람들만 조선의 자주 독립국을 영구히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요. 필경 조선 자주독립은 조선 사람 손에 따른 것이올시다. 불란서가 미국을 도와서 자주 독립을 만들었지만 만일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직분들을 안 할 것 같으면 암만 불란서가 미국을 도와주어도 자주 독립이 못될 것이 올시다. 지금 미국이 조선을 도와줄 생각이 있고 지금 도와줄 터이고 또 몇 달 동안 더 도와줄 듯 하오이다만, 만일 조선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아니하고 다만 미국을 믿고 있다든지 미국을 반대해서 일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아무 일이 안될 터. 그런 고로 불가불 필경은 조선 사람 손에 달린 일인즉, 그 직분을 알고 3·1운동 하던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해서 전국 인민이 동심으로 협력해서 조선을 참 독립국이 되게 하는 것이 다만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될 것이 올시다. 지금 UN이 의원을 보내서 조선을 함동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즉 외국이 돕는 것이고 그 외국 사람 도와주는 것 이용할 것 같으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해야 할 것이 올시다. 조선 사람들이 합하고 싶으면 합할 도리가 있고 만일 합하지 아니하고 합하지 못하고 만들 것 같으면 암만 외국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일이 안 될 것이 올시다. 그러니 필경은 조선이 살고 죽을 것이 조선 민족에 달린 것은 분명하오이다. 오늘 새로 우리가 3·1정신을 깨달아서 동심 협력해서 남방 **제주(05:05)**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손으로 같이 일을 할 것 같으면 조선이 살게 될 것이고, 만일 그것을 반대한다든지 그를 듣지 않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조선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소이다. 그리하니 그 직분을 생각들 하시고 3·1 정신을 다시 깨달아서 남방 붕괴말고 다 조선 하나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직분이요. 그렇지 않으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. 조선이 없어지면 남방 사람도 살 수 없고 북방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제일 목적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요. 조선의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불가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, 그걸 생각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그 수효는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. 수효를 **충수(06:24)**로 만들자면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니 아무쪼록 학문 있고 지식 있고 충심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이 말을 민족에게 말할 하시오. “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,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.” 조선이 없어지면 남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죽을 일을 할 **도리가(7:03)** 있습니까. 살 도리를 하시오. 나는 미국에 돌아온 뒤에 신체가 좀 강해지고 건강이 매우 좋지만 아직도 언제 조선 같지는 모르겠소이다. 내가 가든지 안가든지 다만 부탁할 말은 아무쪼록 조선 살게들 하시오. 조선이 살면 남북이 다 살 테고 만일 조선이 죽으면 남방 사람이나 북방 사람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니, 그 직분은 시방 다른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요. 내 생각에는 조선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남방에도 없을 듯하고 북방에도 없을 터이니, 다만 그 자세라 할 것 같으면 **설령 이론(8:09)** 한다든지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조선 사람이 될 듯하오이다. 한 집안으로 4천 년으로 살아왔는데 왜 지금 나누어서 두 집이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. 둘이 되면 둘이 다 약해지고 살 수가 없을 터. 한 배 속에 든 것 같아서 한쪽 배가 무너지면 저쪽도 망해지는 법이요. 그러니 아무쪼록 그 배를 보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.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**설령 이론(9:00)**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설명해서 원수같이 알지 말고 설명해서 그 실상 지혜

있는 말을 해줄 것 같으면 조선 지탱할 열망이 대단히 크오이다. 나는 다시 당신네들을 보든지 안 보든지 원하는 것이 그 우리 조국을 살게 해주게 만드는 것을 나는 바라고 믿습니다. 이 계절을 (9:42) 타서 우리 친구들한테 안부들 해주시고 나는 설령 미국에 있더라도 내 정신은 조선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 아무쪼록 합심하고 합동해서 외국사람 돕는 것을 이용해서 조선을 살게 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